

TV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00 굿모닝 채널A입니다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위험한 여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08	00 생방송 김성주의 모닝카페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09	00 해피엔드 101가지 부부 이야기(재) 30 월화미니시리즈 <컬러 오브 우먼(재)>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복희누나> 40 TV 50년 기획 여유만만	30 좋은아침
10	00 다섯 남자의 맛있는 파티 (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천 세상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40 너는 내 운명(재)	00 행복한 고실 55 바른말 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TV 특강(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10 뉴스와 경제 30 보이는 특강	00 KBS 뉴스12	00 MBC 뉴스 15 자원봉사희망프로젝트 니누면 행복스페셜	00 SBS 12 뉴스 30 건강클리닉
1	30 해피엔드 101가지 부부 이야기(재)	00 KBS 걸작선 <사랑을 믿어요(재)>	50 주말연속극 <전편의 입맞춤(재)>	30 한국의 숯스페셜
2	30 이산가족 공동 프로젝트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10 제16회 상성회배 월드마스터 결승 3국	10 호루라기(재)	00 SBS 뉴스 10 세상탈것 유레카(재)
3	30 보이는 특강(재)	00 KBS 뉴스타임 05 주류리 동물탐정(재) 35 출발! 모나리자호 미술탐험대	00 키즈 어드벤처 여기가 어디야	10 인문학 열전
4	30 개그시대(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글로벌 진단 <위기의 시대 제3편 에너지 패권전쟁(재)>	00 TV 유치원 30 파워 마스코	00 쥬블스 30 꾸러기 탐구생활
5	40 뉴스네트워크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다큐로 만나는 세계
6	00 다섯 남자의 맛있는 파티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시세상	00 KBS 6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00 뉴스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7	00 생방송 연예인사이드	00 KBS 뉴스7 30 스카우트	45 스타 인생극장 <저우림>	10 시사저널 때때때 20 일일드라마 <내일 꽃님이>
8	00 너는 내 운명 30 채널A 뉴스830	25 일일연속극 <당신 뿐이야>	20 세계는 지금 55 비타민	15 일일연속극 <오늘만 같아라> 55 MBC 뉴스데스크
9	15 스포츠 투니잇 20 개국특집 해외드라마 <위험한 판결>	00 KBS 뉴스9	55 수목 드라마 <영광의 재인>	55 SBS 대기획 <부리집은 나무>
10	20 김수미의 쇼킹	00 환경스페셜 50 아름다운 사람들		
11	30 해피엔드 101가지 부부 이야기	00 KBS 뉴스라인 40 수요기획	05 추적60분	15 테마스페셜
12	00 한밤뉴스 10 컬러 오브 우먼(재)	25 KBS 뉴스 35 클래식 오디세이	05 스포츠 하이리이트 25 TV 50년 앙코르 한바탕 웃음으로	15 TV백과사전 25 나이트리인 35 휴먼다큐 나눔

채널A 개국특집 수목극 '총각네 야채가게' 주인공 지창욱 대낮 시장서 식스팩 과시 촬영 '뜨거운 관심'

워터치스카이(대표 박인택)가 제작하는 채널A 개국특집 수목미니시리즈 '총각네 야채가게'에서 주인공 한태양 역을 연기하는 지창욱이 백주에 식스팩을 보이며 시장통을 질주, 시장 상인들은 물론 물건을 떨어 나온 아줌마들을 즐겁게 했다. 이 기막힌 광경을 보지 못한 누리꾼들은 아쉬움에 침만 꿀꺽 삼켰다는 후문. 영하의 매서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스팩을 과시하며 백주 활보 촬영을 감행한 지창욱은 촬영지후 인근 병원으로 직행 링거를 맞고 다시 촬영장으로 복귀하는 대단한 열의를 보여줬다. 지창욱은 '무사 백동수' 이후 '총각네 야채가게'를 준비하며, 몸과 마음이 건실하고 바른 청년 한태양역을 소화해 내기 위해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았다. 2개월간 고단백 식단과 함께 근육을 매끈하게 다듬기 위해 하루 4시간씩 혹독한 훈련을 받아 매끈하면 서도 볼륨 있는 근육을 만들어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얼굴은 옛날 지창욱의 명품 초콜릿 복근에 반전몰매, 신 베이 글남의 출현이라며, 한창 고무되어있는 모습이다. 지창욱의 이날 활보 장면은 오는 28일 방송될 예정으로, '무사 백동수'에서 보여주었던 명품 초콜릿 복근이 '총각네 야채가게'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 지 기대를 모은다. 올 겨울 훈훈한 감동의 열혈청년 드라마 '총각네 야채가게'는 채널A를 통해서 오는 21일 저녁 9시20분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tvN 월화극 '꽃미남 라면가게'

정일우 "차지수, 유치하면서 매력적인 재벌2세"

"어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오글거려요.(웃음) 그래서 NG도 많이 나오. 하지만 그만큼 재미있어요. 유치하면서 매력적인 게 우리 드라마 매력인 것 같아요. 차지수도 그렇고요." 정일우(24<사진>)가 올해 두 작품 연속 안타를 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 봄 SBS '49일'에서 현 대관 저승사자 '스케줄러' 역

으로 방점을 찍은 그는 현재 tvN 월화드라마 '꽃미남 라면가게'에서 고등학교 재벌 2세 차지수 역으로 소녀팬과 누나 팬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최근 글자모에서 만난 정일우는 "확실히 10대 팬이 다시 늘어났다"며 씩 웃었다. 2006년 고교생 역으로 출연한 MBC '거침없이 하이킥' 때 10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에 육박하며 동시간대 케이블 시청률 1위를 유지한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7일(음 11월 13일 丙申)

子 36년생 격려해서 기를 살려 줘라. 48년생 생기가 있는 희망이 찾아오는 형상이니 준비하고 있라. 60년생 일하는 사람 손에 달려 있으니 기본 상하지 않게 하자. 72년생 생활에 만족하고 바른 생활 해야 한다. 84년생 객관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행운의 숫자 : 34, 49

丑 37년생 수확을 살펴보고 관리에 힘쓰라. 49년생 가까운 사람이 무난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라. 61년생 백주 대로에서 우발적 범죄인을 주의하라. 73년생 진력으로 경주한다면 조건이 좋아지겠다. 85년생 마음 비우고 대처하면 순조롭게 진행된다. 행운의 숫자 : 79, 37

寅 38년생 오랜만에 만족할 만한 일이 생긴다. 50년생 길사와 연결되는 행운이 강도 높게 찾아온다. 62년생 고차원적인 술수로 남을 현혹하는 이를 주의하라. 74년생 사소한 미흡함은 대법하게 넘어가자. 행운의 숫자 : 22, 43

卯 39년생 여자를 시켜서 대우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51년생 제3자가 개입하면 더 복잡해진다. 63년생 무리대고 과잉 신뢰하고 있을 수 있다. 75년생 마무리에서 정제할 수 있으나 결국 종결짓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4, 74

辰 40년생 시류에 따라서 변하는 인심을 굳이 맞출 것까지는 없다. 52년생 레저 문화로 생활을 윤택하게 하자. 64년생 순환 구조의 리듬을 파악해야 한다. 76년생 하는 일이 세분화하면서 체계가 선다. 행운의 숫자 : 81, 11

巳 41년생 연습이 알찬 결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53년생 원만한 관계로 경제 활동의 활로를 열어 놓자. 65년생 충동적으로 관여하게 된 일을 믿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77년생 흥은 가고 길사가 접근한다. 행운의 숫자 : 35, 89

午 42년생 친분 관계의 인물이 급진 문제 앞에서 급속히 냉각된다. 54년생 방치했다가는 갈수록 악화될 수 있다. 66년생 회색 없는 절대로 큰일을 도모할 수 없다. 78년생 집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득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3, 49

未 43년생 부담스러웠던 이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니 출가분해된다. 55년생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니 겸허히 받아들여라. 67년생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79년생 지나치면 부득이한 못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2, 09

申 44년생 재물의 문자가 들어오니 기쁨이 넘치느니라. 56년생 징후가 보이면 반드시 현상을 동반하게 된다. 68년생 건강관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느니라. 80년생 마부어 집착해보면 스스로 다 알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5,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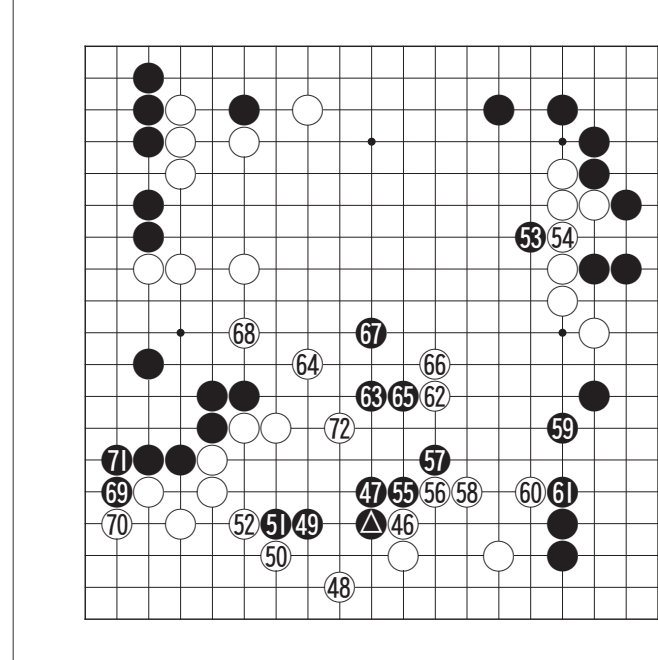
酉 45년생 걸림돌을 현명하게 우회하라. 57년생 지금은 형편이 다르므로 막연히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리라. 69년생 부부간의 갈등이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81년생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무난하겠다. 행운의 숫자 : 69, 94

戌 46년생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을 특히 경계하라. 58년생 피로를 열어 놓고 공격하도록 하라. 70년생 건전한 의도를 애국시켜서 입장을 단정하게 하려는 이가 있다. 83년생 고집을 부리다가는 실패하기 십다. 행운의 숫자 : 36, 54

亥 47년생 새로운 일을 찾으려 하지만 시기상조다. 59년생 충동을 자제하면 기회가 올 것이다. 71년생 건전한 의도를 애국시켜서 입장을 단정하게 하려는 이가 있다. 83년생 고집을 부리다가는 실패하기 십다. 행운의 숫자 : 74, 8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제20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인체육대회



공허한 봉쇄

●로 여겨졌던 수가 절충점으로 놓일 수 없는 곳이다. 이곳을 둘 수 있었다는 것은 일단 흑이 기분좋은 흐름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장효 5단은 기분이 좋아진 탓인지 다음 흑 49가 안일한 수였다. 단단하게 두는 것이 정 5단의 기풍이기는 하나 이 수로는 '참고도'처럼 흑 1로 한줄 더 뛰어야 했다. 그러면 백은 2, 4로 넘는 정도인데 이 그림은 실전과는 집자이가 크고 다음에 '가'의 단점을 노릴 수도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백 50, 52가 안성맞춤으로 하면서 송두리째 집으로 굳어져서는 백이 상당한 득점을 올리고 있다. 초반 싸움은 기선을 누가 제압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이 관도 흑이 한수 빼앗기지 백이 62부터 공격을 개시하며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공격이라는 것은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만다. 백 68이 조금 공허한 수. 71자리에 젖혀야 했다. 거꾸로 당한 것이 아프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굿모닝 잉글리쉬

Why not just open the window?
창문을 바로 열면 되지 않아요?

A : Boy, it's really stuffy in here.
B : You're right. We need some fresh air.
A : Let's turn on the air-con.
B : Why not just open the window?
A : That's even better.

A : 어휴, 여긴 너무 답답해.
B : 그래, 환기를 시켜야겠어.
A : 에어컨을 켜자.
B : 창문을 바로 열면 되지 않아요?
A : 그게 훨씬 낫겠네.

* boy : (구어) 이란, 참, 아아.
* stuffy : 통풍이 나쁜, 습막힐 듯한 : (구어) 케케묵은
* Why not just open the window?
= Why don't you just open the window?
* Why learn English?
= Why must I/We learn English?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한자이야기

街談巷說(가담항설)

거리 가, 말씀 담, 거리 항, 말씀 설

가담항설(街談巷說)은 거리나 향간에 떠도는 소문을 이르는 말이다. 비슷한 말로는 가담항어(街談巷語), 가담항의(街談巷議), 가설항담(街說巷談), 도청도설(道廳聽說) 등이 있다. 중국 후한의 역사가인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소설은 패관에게서 나왔으며 가담항설과 도청도설로 만들어졌다(小說者流 蓋出於俳官 街談巷說 道廳聽說之所告也)'라는 구절이 나온다. 패관은 한나라 이후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모아 기록하는 일을 맡아 하던 벼슬을 말하는데 이 패관들이 채집하고 기록·정리하여 만들어진 소설을 패관문학(俳官文學)이라고 한다.

[출전]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

니하오 쑹구위

开门红 kāiménhóng

문을 열자마자 붉은 색-대박

문(門)을 열자(開) 마자 붉은(紅) 색. - 불이야!
중국어 표현으로 '대박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대박 나다'에서의 大船은 큰 배입니다. 개화기에 서양의 신기한 공산품이 들어올 때 큰 무역선을 싣고 들어왔나 봅니다. 그 배가 들어오면 갖가지 물건을 싣고 장사꾼들이 함께 왔겠지요. 그래서 큰 배가 들어오면 사람들과 돈이 모여드니 큰 호황을 누렸을 것이고, 이에 연유한 말이라고 합니다.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오하오우 니혼고

まいにちかんじ べんきょう 毎日漢字を勉強しています。

매일 한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A : 金さんは日本の新聞が読めますか。
B : 読みたいんですけど、漢字が難しくて、読めません。
A : 私もそうです。それで、新聞が読めるように、毎日漢字を勉強しています。
B : そうですか。私も新聞が読めるようになりたいです。

A : 김씨는 일본 신문물을 읽을 수 있습니까.
B : 읽고 싶습디만, 한자가 어려워 써 읽을 수 없습니다.
A :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문물을 읽을 수 있도록 매일 한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B : 그렇습니다. 나도 신문물을 읽을 수 있도록 되고 싶습니다.

[문법정리]
◎ 동사의 가능형 + ように(할 수 있도록)
▶ 日本語が話せるように、熱心に勉強しています。
= 일본어를 얘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